

부처님께서 50년 전 수화공덕을 설한 다음 다시 <법화경>을 듣는 공덕에 대해 설한다.

① 스스로 승방에 나아가 잠깐 동안이라도 <법화경>을 듣는 것.

② 설법장소에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 법 듣기를 권하며 자리를 나누어 앉도록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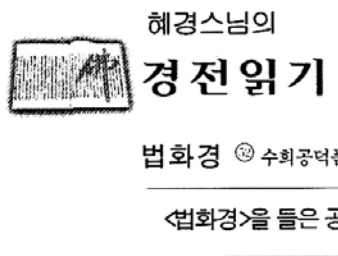
③ 사람들을 설법장소로 권유하여 함께 듣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얻어지는 공덕은 ①의 경우에는 죽은 후 다시 태어나서 훌륭한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나 진귀한 보배로 된 탈 것을 얻고 하늘의 궁전에 도달할 수 있다. ②의 경우에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재석천·법천왕 혹은 천룡성왕이 되어 옥좌에 앉을 수 있다. ③의 경우에는 죽은 후에 다른 이들 얻은 보살과 같은 곳에 태어나 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나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특히 말해 줄 것은 다음에 설하는 것처럼 신체적 특징에 대한 공덕을 얻는다고 한다.

그것은 백천만 세에 병여기가 되지 않고 입에서 추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혀는 항상 붉고 입도 역시 붉어지며, 이빨에 때가 끼거나 검지 않고 누렇게 되지도 않으며 이빨 사이가 벌어져 성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며 굵거나 뾰가 없고, 입술이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위로 걸어 올라가지도 않으며 거칠거나 부스럼이 나지도 않으며 언청이가 비뚤어지지도 않고 두텁거나 너무 크지도 않으며 또한 검지도 않고 여러 가지 흉한 모습을 가지지 않고,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비뚤어지거나 굽지도 않으며, 얼굴은 색이 검지도 않고 좁고

길지도 않으며 폭 들어가거나 비뚤어지지도 않아 입체 바림직하지 않은 인상이 나타나고, 입술이나 혀나 이빨이 모두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이며 코는 높고 곧아서 얼굴 모양이 원만하며 눈썹은 높고 길며 이마는 넓고 반듯해 인상(相)이 모두 훌륭하게 갖추어진다고 한다. 요컨대 무릇

는 말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말한 현실적인 배경을 추측해보면 당시의 출가 수행자들이 대체적으로 5체(五體)를 원만하게 구족하여 건강한 육체를 갖추었으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용모가 아니라 반대로 호감을 주는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해 낼 수 있다. 어찌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⑤ 수화공덕품 제18  
『법화경』을 듣는 공덕

### 신뢰 받을 수 있는 육체조건도 갖춰야 '타인 속으로 들어가' 보살행 구현

사람의 얼굴로서 완벽하고 원만한 인상을 갖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인상은 당시 고대의 인도 사람들에게는 인공으로서의 이상(理想)이었으리라. 마치 고대 회화인들이 균형 잡힌 육체미를 구현 것과 흡사한 것이다. 또 뒤집어 보면 고대 인도의 현실에서는 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위에서 말한 반대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

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울장> 가운데 세세한 승가의 입단 규정이 있는데 그 입단 금지 조항을 모두 5체 만족, 보충하거나 그 이상의 용모를 가진 사람에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장> 가운데의 입단 금지 조항에는 범죄자 왕과 대신 노예 부처자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의한 입단 금지 조항, 혹은 교단의 화합을 깨뜨린 사람, 의도의 신봉자 등과 같이 불교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입단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입단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병자 신체장애자와 노약자 등이다. 이 규정은 각 부파가 전하는 <율장>에 따라 다소의 증감이 있으나 이렇듯 <십송률> 등에는 앞에 거론한 병이나 신체적 장애 외에 용모나 자태에 관해서 매우 세밀한 규정이 있어 머리털·눈·귀·코·입술·이빨·목·채형·피부색 등의 각 항목에 관해 각각 제의되는 예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법화경>을 듣는 공덕으로서의 구체적이며 세세한 용모에 대한 기술도 위에서 말한 당시의 출가자의 신체상의 조건과 대조해 보면 기이한 것이 아니라 이해된다.

<법화경>을 신앙하는 집단은 출가인 집단이 아니라 재가 중심의 집단이었던 모양이나 당시 출가자 집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육체상의 결점으로 인해 이런 저런 말을 듣지 않을 만큼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똑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법화경>을 신앙하는 결과, 내세에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얻을 수 있다고 설파했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물며 <법화경>은 신앙의 글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다.

아무튼 <법화경>을 알리려는 사람은 정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육체적인 조건도 갖춰지기를 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자진해서 대상, 즉 타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진해서 귀의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보살이기 때문에 그 공덕을 찬양한 것이라고 본다.

##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 따름(順)과 거스름(逆)

지난 11월 6일 2003학년도 수능평가가 있었다. 이를 후 11월 8일자 한 일간지에 같은 나이 또래의 두 여성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첫 번째는 순리(順理)를 따른 바키 손(19에 관한 기사다. 현재 그녀는 심대들을 위한 한 경제교육 전문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커리큘럼 개발팀장이다. 고1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그녀는 대학교수인 아버지에게, "왜 우리나라 산맥의 이름들을 죄다 외워야 하죠? 전 꿈이 많았어요. 그대 지금은 제가 필요하냐 모르겠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제 꿈을 잃어버렸어요"란 말을 듣고 자비를 했다. 그녀는 남을 따라하기를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자기만의 인생길을 걸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순리에 거스름 보기로, 언론에는 뚜렷한 의대 지원 동기에 대한 기사는 없으나, 외대를 꼭 가고 싶어 했던 한 재수 여학생의 비관 자살에 관한

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세부전공을 택할 때 새벽에도 응급실로 쫓아 나가야 하는 외과 분야를 기피해 10년 후에는 외과의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한편 <무문관> 제39칙의 '운문화타(雲門話話)'란 화두가 있다. 어느 때, 한 승려가 운문 선사에게 무엇이냐 물으려 고 '광명이 고요히 온 누리를 두루 비추니' 라고 하며 제1구를 다 말하기도 전에, 운문 선사께서 갑자기 말을 가로 막으며, '아니 이는 장졸수재의 글이 아니냐!' 하고 말했다. 그러자 '네!' 하고 이 승려가 대답했다. 곧 '글렀다 [화타話話]' 라고 운문 선사께서 말했다. 한 승려가 장졸의 오도송을 영무새처럼 흉내내며 멋들어지게 낭송한 뒤, 자기 대에는 깨진 책 무언가 헤아린 바에 관해 운문 선사와 한번 발랄 태세였으나 보기 좋게 초전박살을 당한 것이었다. 이 승려가 '화타' 한 곳인지

### "꿈 잃었어요" 과감히 자퇴... 자신의 길 의사지망 재수생 수능성적 비관 자살

기사다. 죽음의 원인은 수능 평균점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입시기관과 언론의 선급한, 잘못된 예측에 있었다. 입시기관들은 "난이도는 작년보다 약간 쉬웠지만 예상보다 재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더 심했던 것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외대 지망생 가운데에는 적성에 맞고, 생애에 대한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득해 인술(仁術)을 널리 펴기 위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필자가 만나본 중진급 의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요즈음 의대지망생들이 단지 피상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든다

를 밝히는 것이 이 화두의 핵심이 아니 세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사실 필자의 경우 중 3때, 의사였던 아버지께서 대개 의사 아버지가 아들도 의사를 시키는 관행을 깨시며, "너는 다른 직업은 다 택해도 좋으나, 부디 의사는 하지 말아라!" 하시는 한마디(입전어一轉語)에 그 이후 의사란 직업은 꿈도 꾸지 않았으며 그 덕분에 가장 적성에 맞는 물리학자의 입학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물리학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적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때였음을 전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강대 물리학과  
yypark@ccs.sogang.ac.kr

도 뒤는 이들이여! 참 부처와 참 법은 모양이 없는데, 그대들은 다만 허깨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들어우오 도깨비일 뿐 참 부처는 아니니, 곧 외도의 견해이다. 진실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 한탄도 취하지 말고, 삼계의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의 구족을 허락치 말아야 한다. 하늘과 땅이 거꾸로 되어도 나는 의심치 않고, 시방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도 한 생각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삼도의 지옥이 문득 나타나도 한 생각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왜 그러는가? 나는, 모든 법이 헛된 모습이어서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만법은 오직 식(識)일 뿐이다. 그러므로 꿈이요 허깨비인 헛된 꽃을 무엇 때문에 애써 붙잡고 싶어 하는가?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가? 몇 가지 비유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자. 인형극이 공연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움직이는 인형이지만, 그 인형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인형은 허망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모니터나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⑤

#### 마음공부란 무엇인가

이 물결은 허망하고 보이지 않는 물이 진실하다. 우리가 자면서 꿈을 꿀 때, 꿈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실체가 아닌 허망한 것이지만,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실재하는 진실이다. 결국 이런 예들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허망하고, 그 허망한 것을 드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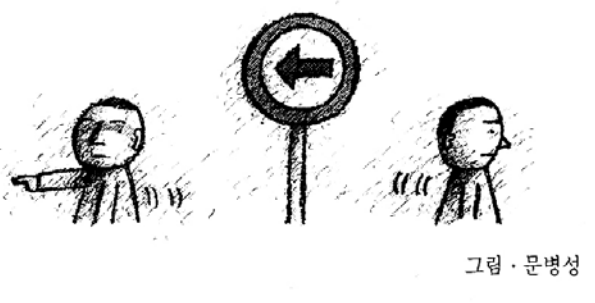
경험을 드러내는 모양 없는 마음일 뿐이다. 마음공부란 바로 허망한 경험세계인 의식을 진실한 실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참으로 진실한 실재인 마음을 찾는 것이다. 우리 의식이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진실한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꿈을 깨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이 발버둥은 곧 깨어나려는 간절하고 절실한 바람이다. 이 바람의 강도가 극에 달하였을 때, 적절한 가르침을 만나면 문득 깨어나게 된다. 하나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모든 꿈에는 꿈꾸는 그대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마음은 곧 진실한 그대 자신이다. 이제 그대의 손바닥을 펴고 오무려 보라. 그렇게 손바닥을 펴고 오무릴 때, 그대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그대 자신인 마음은 의식이라는 모양을 갖추어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생각이나 말로써 파악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그대 자신이 아니다.

김태완·부산대 강사, 철학

### 꿈에서 깨어나 보이지 않는 진실 찾아야

타나는 것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영상이지만 그러한 영상을 나타내는 것은 무형무색의 전자파이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영상은 허망하고 영상을 나타내는 전자파는 진실하다. 호수에 물결이 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결이지 물은 아니다. 그러나 물결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의 움직임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

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말하고 침묵하고·움직이고·가만히 있고·보고 듣고·느끼고·알고 하는 가운데, 의식(意識)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경험 세계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허망한 것이고, 진실한 것은 오직 이러한 경험의 모양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그림·문병성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실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이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해내 노폐물이 배기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중중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박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연 50여종의 아미노,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배워 두시라 -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하게 되리라!  
난치병 및 과질 조정, 지도자 모집

서울과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 속성반 개설

앞으로 에이즈 보다 더한 과질이 발생할 징후가 보이는데 이교육을 이수한 당신은 지구상에 현재 나와 있는 항성제로서는 속수무책인 과질까지도 약, 침, 氣, 功의 도움없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자 되므로 당신에게 조정받은 사람은 방이세포부활로 감기등이 침투를 못하게 되어 매사 당신 스스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것이다. 이법은 예언된 학문이며 지도자를 양성할 시기가 되어 전수 하는 것임이다.

대상

- 본 능력을 전수 받고자 하는 분
- 先天之明의 지혜를 가져신 날 너 및 제질병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는 분
-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

교육 과정

- 비만 조정법(부작용없음)
- 난치병 조정법
- 항성제로 통제 불가능한 과질등 속효 조정법
- 심이중 지능과 심이중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 력용합법 전수

본 학문을 전수받고 난 후 당신의 능력은?

1. 하루 1시간씩 6일을 조정해주면 OK.
2.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 할지라도 살이 쪽쪽빠져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 입는다.
3. 감기도, 암도, 전신무력증도, ?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4.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람.

※ 자연의 순리에 의한 노화는 어쩔수 없겠으나 그외부의 인연에서 오는 치료불능의 제질병 및 과질까지 당신은 능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자 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종교와는 무관함 -

서울 지역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문의처 051)628-9578, 957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研究學會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때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10분 마이산  
황주

진안 마이산 탐사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

▶ 마이산 탐사 탐영제